

# 2007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언어 영역 •

### 정답

1	⑤	2	②	3	②	4	③	5	⑤	6	④	7	⑤	8	⑤
9	④	10	⑤	11	④	12	④	13	①	14	③	15	⑤	16	①
17	②	18	③	19	⑤	20	①	21	①	22	④	23	②	24	⑤
25	③	26	④	27	③	28	②	29	③	30	①	31	④	32	②
33	⑤	34	①	35	④	36	①	37	③	38	②	39	④	40	③
41	③	42	①	43	①	44	②	45	②	46	④	47	④	48	③
49	⑤	50	①												

### 해설

<1번> 이제 여러분은 세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미선** : (약간 들뜬 목소리로) 내가 첫 번째니까 먼저 사다리를 탈게. 쭈-욱 쭈-욱 쭈-욱 쪽, 앓싸, ‘집에 가기’ 당첨~. 다음은 현서 차례야, 쭈~~욱(길게) 현서도 ‘집에 가기’네.

**제훈** : 어, 뭐야~. 하나하나 내가 휴지통 비워야겠네.

**현서** : ㅎㅎ, 그래야겠지. 그런데 사다리타기 게임을 할 때, 중복되지 않고 한 항목에 하나씩만 이어지는 게 참 신기해. 안 그러니, 제훈아?

**제훈** : 그래, 나도 궁금했어. 어떤 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미선이 넌 알고 있지?

**미선** : 당연하지. 사다리타기 게임은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함수의 일대일 대응과 자리 바꿈의 개념이 숨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접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셈이기 때문에 중복이 생기지 않는 거야. 여기 사다리 그림 옆에 자리 바꾸기 과정을 단계별로 적어볼 테니까 잘 봐. 우선 1단계에서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 사이에 가로줄이 있으니 서로 자리를 맞바꾸어야 해. 그럼, ‘1, 3, 2’가 되겠지. 그리고 2단계에서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1과 두 번째 자리에 있는 3이 자리를 맞바꾸는 거야. 그러면 ‘3, 1, 2’가 되잖아.

**제훈** : 아~, 그러니까 가로줄로 이어져 있는 인접한 두 자리가 자리를 맞바꾸는 셈이구나.

**미선** :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3단계에서는 ‘3, 1, 2’의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가 자리 바꿈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4단계에서는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가 바뀌어서 최종적으로는 ‘2, 3, 1’이 되는 거야. 사다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위쪽과 아래쪽이 결국은 일대일 대응이 되는 거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 이해돼?

**현서** : 아~, 그런 원리가 숨어 있었구나. (장난스런 어조로) 어쨌든 제훈 군, 휴지통 깨끗이 비우렴~.

**미선, 현서** : (즐겁게 웃음)

1. [출제의도] 설명 대상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다리타기 게임의 원리는 인접하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두 자리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 자리 바꾸기 과정의 3단계에서는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 사이에 가로줄이 있기 때문에 ‘3, 1, 2’의 두 번째 자리 ‘1’과 세 번째 자리 ‘2’가 자리를 맞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a, b, c’에는 ‘3, 2, 1’이 들어가야 한다.

<2번> 이번에는 라디오 뉴스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 : 정부에서는 연내에 「어린이 및 청소년 식생활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현덕수 기잡니다.

**기자** : 요즘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를 선호함에 따라 엄청난 양의 탄산음료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고등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를 팔고 있는 것도 청소년들이 탄산음료를 과다 소비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뷰(의사)** : 탄산음료에는 당분이 많아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과 인산염 등의 성분들이 뼈를 약하게 만들거나, 숙면에 지장을 주어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지요. 그리고 탄산음료의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 많은 사람들이 탄산음료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인터뷰(의사)** : 탄산음료를 마시면 트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트림은 소화가 촉진되면서 생기는 자연발생적인 가스가 아니라 위에 찬 탄산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탄산음료는 청량감을 줄 뿐이지 소화와 관련된 의학적 효능은 없는 거죠. 오히려 탄산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다 보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출제의도]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탄산음료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과 탄산음료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 그리고 탄산음료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통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식생활안전관리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탄산음료가 청소년들의 숙면을 방해해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탄산음료가 청소년들의 성격 형성과 연관된 정보는 발견할 수 없다.

<3번> 이번에는 요리 강좌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식은 된장찌개 먹어 보셨죠? 좀 짜고 맛이 없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차가운 느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맛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혀는 20~40℃에서 가장 민감한데, 음식의 온도에 따라 각각의 맛을 느끼는 정도가 변합니다.

단맛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5℃에서 가장 달게 느껴지지만 이 온도보다 높거나 낮으면 그다지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스커피나 뜨거운 커피에 설탕을 넣어도 좀처럼 달콤해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짠맛은 온도가 높을 때에는 그다지 강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온도가 낮을수록 강하게 느껴집니다. 쓴맛도 짠맛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을수록 강하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식은 요리가 맛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도 신맛은 온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온도가 높건 낮건 신맛이 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각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성들여 만든 요리를 더욱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요리를 담을 접시나 그릇의 온도를 미리 요리의 온도에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콤달콤한 귤을 냉장고에 넣어 차게 해서 먹으면, 그냥 먹을 때에 비해 맛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3. [출제의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여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단맛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5℃에서 가장 달게 느껴지고 이 온도보다 높거나 낮으면 단맛이 약하게 느껴진다. 신맛은 온도 변화와

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맛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새콤달콤한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꿀의 온도가 낮아져 단맛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

**<4-5>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 선생님. 여기 개미들 좀 보세요. 개미들이 먹이를 집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개미들은 왜 일렬로 이동할까요?  
**선생님 :** 그건, 처음 먹이를 발견한 개미가 집으로 돌아올 때 뿌려놓은 페로몬 냄새를 다른 개미들이 따라가기 때문이란다.  
**학생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맨 처음 먹이를 발견한 개미는 페로몬 냄새가 나는 길이 없을 텐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 :**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을 찾는 거지. 집을 나선 개미가 태양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기억해 두었다가 돌아올 때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야.  
**학생 :** 개미가 태양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선생님 :** 으음~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산치'라는 사람이 개미가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을 찾는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는데, 개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에 판자를 놓고 개미가 태양을 볼 수 없게 했단다. 그러자 개미가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잃은 듯한 반응을 보였어. 그러다가 판자의 그림자를 벗어나자 다시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한 거야. 선주야, '산치'가 했던 실험을 우리도 해 볼까?  
**학생 :** 예 선생님, 참 재밌겠는데요.  
**선생님 :** 어디보자. 먹이를 물고 집으로 돌아오는 개미를 찾아야 하는데. (사이) 어, 여기 있구나. 봐, 개미가 태양을 오른쪽에 둔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으니 개미가 돌아오는 길 오른쪽에 판자를 대서 태양을 가려 보자. (사이)  
**학생 :** 선생님, 정말 개미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길을 잃은 것처럼 말이에요.  
**선생님 :** 그럼 이번엔 판자를 치워 볼까? (사이)  
**학생 :** 와, 개미가 다시 태양을 오른쪽에 두고 방향을 바꿔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선생님 :** 선주야, 만약 판자로 태양을 가린 다음 맞은편에 개미가 태양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설치해 놓으면 개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학생 :** 글썩요. 으~음, 일단 개미들이 거울 속에 비치는 태양을 오른쪽에 두면서 집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거울을 벗어나 진짜 태양이 보이면 또다시 그 태양을 오른쪽에 두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그려 볼게요.

**4. [출제의도] 동물의 생태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개미는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을 찾는다. 따라서 태양을 오른쪽에 둔 채 집으로 가던 개미가 판자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태양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반대편에 거울을 놓게 되면 거울 속에 보이는 태양을 오른쪽에 두고 집 방향을 잡아 이동하게 된다. 그러다가 판자의 그림자(거울)를 벗어나 진짜 태양을 인지하게 되면 진짜 태양을 오른쪽에 두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출제의도] 대화가 전개되는 양상이나 발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선생님은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을 찾는 개미의 생태를 설명한 후 이를 확인하는 실험을 통해 학생이 설명 내용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제시된 소재의 특성에 착안하여 적절한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먼저 제시된 다섯 개의 소재가 지닌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발문에 '한 특성에 착안하여'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착안점'에 소개된 내용이 제시된 소재가 지닌 특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착안점을 '학업의 자세'와 관

련지어 연상했을 때, '구상 내용'에 제시한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여행을 떠올릴 때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떠남'이라는 착안점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내용과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게 진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이라는 구상 내용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7. [출제의도] 개요를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본론 1'은 청소년 놀이 문화가 갖는 의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 3. 나.'는 정신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의의 아래 오락성만 추구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해야 하므로 '놀이를 통한 자기 계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해야 한다.

**8. [출제의도] 내용에 따라 글감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 1》은 문자메시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자료 2》는 문자메시지가 의사소통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보여 준다. 《자료 3》은 문자메시지가 언어표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보여 주며, 《자료 4》는 직장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여 주는 그래프 자료이다. 문두에서 '문자메시지 사용 실태'에 대한 글을 쓴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성격에 맞는 자료를 사용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⑤의 경우, 《자료 3》과 《자료 4》를 공동체 의식 강화 효과와 연결하고 있다. 그런데 제시된 두 자료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오답풀이]** ① 《자료 1》에는 1인당 문자메시지 사용이 많아짐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일반화 경향을 잘 보여 준다. ② 《자료 2》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 1》과 《자료 4》는 다양한 쓰임과 확산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자료 2》는 언어생활의 긍정적 측면을, 《자료 3》은 부정적 측면을 보여 준다.

**9. [출제의도] 지정된 진술 방식에 맞게 뒷받침 문장을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과정'은 시간의 흐름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 일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진술하는 방식이다. ④의 '아침 일찍 등교',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공부', '긋은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은 주어진 문장의 '부지런한 학생'의 예시에 해당된다.

**10. [출제의도] 글의 초고를 작성한 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주어인 '이런 점들이'와 서술어인 '살아남았다'가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를 자연스럽게 호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술어를 '살아남게 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문장은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둘째 문장은 화제 제시를 위한 도입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의 자리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더디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란 의미이다.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가 쓰였으므로, '늦다'가 사용되어야 한다. ③ '적합한'과 '알맞은'은 의미가 중복되는 말이다. 따라서 '알맞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출제의도] 낱말의 합성 과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낱말이 대등적으로 합성할 때에 어근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④의 ㄹ은 형태는 바뀌지 않았지만 의미는 바뀌었다. 이 경우에는 '밤낮'이 의미가 바뀌어 '늘'이라는 부사로 쓰이게 된다.

**[오답 풀이]** ① ㄱ은 '논'과 '밭'이 합성하면서 형태와 의미가 모두 바뀌지 않았다. ② ㄴ은 형태는 바뀌었지만 의미는 바뀌지 않았다. ③ ㄷ은 형태는 바뀌었지만 의미는 바뀌지 않았다. ⑤ ㄹ은 형태는 바뀌었지만 의미는 바뀌지 않았다.

**12. [출제의도]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을 이해하여 실제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르다'는 주어 외에 비교 대상과 관련되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

므로 세 자리 서술어가 아니라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에서 '영국의'는 주어인 '날씨는'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서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이 없고, '한국과'는 '다르다'를 꾸며 주는 성분으로서 주어('날씨는')와 함께 '다르다'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므로,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된다.

[오답풀이] ① '피어올랐다'는 주어('아지랑이가')만을 꼭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여기서 '모락모락'은 <보기>에 있는 '새가 빨리 날아간다'의 '빨리'처럼 빼도 문장을 이루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닌 수의적 부사어이다. 수의적 부사어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바라보았다'는 주어('그 소년')와 목적어('무지개')가 꼭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아니다'는 주어('내 동생')와 보어('거짓말쟁이가')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베풀었다'는 주어('그가'), 목적어('친절') 외에 필수적 부사어('나에게')를 꼭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13 - 15 ] (가)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 (나) 이규태, 「헛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한다」

(가)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옛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통찰의 의사 소통 방식을 확인한 다음, 그러한 소통 방식이 발달하게 된 원인을 농경 사회였던 전통 사회의 환경에서 찾고 있다. 통찰의 묘미와 함께 정확한 의사 전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나) 이규태, 「헛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한다」  
 통찰이 필요한 한국인의 독특한 언어 관습을 예를 들어 설명한 글이다. 대화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의 속마음을 읽어냄으로써 말없는 가운데 상호간 우호적이며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3. [출제의도] 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의 공통적인 서술 대상은 '통찰에 의한 의사소통'이다. (가)는 한국 사회에서 '통찰에 의한 의사소통'이 발달하게 된 원인을 거론하여 그 개념을 소개하고 있고,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통찰에 의한 의사소통 방식'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고 있다.

14.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에 따르면 '통찰의 언어'는 동일한 문화적 관습 아래 같은 상황을 오래 공유해 왔을 때 그 구성원 간에 통용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또한 '통찰의 의사소통'은 말의 표면적인 의미 자체보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풀이] (가), (나)에 따르면 '통찰에 의한 의사소통'은 비·반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화 등의 음성 언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통찰의 언어'를 음성언어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가)에 따르면 '통찰에 의한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는데 매우 효과적인 의사소통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실수나 오해를 빚기도 한다. 그러므로 '통찰의 언어'가 정확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도 잘못된 설명이다.

15. [출제의도] 사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통찰에 의한 의사소통'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⑤에서 선생님은 자신의 책을 가져다 줄 학생이 있는지 묻고 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선생님의 말을 통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⑤는 '통찰에 의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 16 - 19 ] 원용찬, 「경제학 블로그」

이 글은 시대 상황에 따라 경제 형태가 변모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글로, 글쓴이는 공장제 자본주의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났고, 시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범위의 경제'를 거쳐 최근 '연결의 경

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글쓴이는 각 경제 형태의 특징을 구체적 사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제시하는데,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최근 나타난 '연결의 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6.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 제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지문은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바탕으로 경제 형태가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먼저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범위의 경제'가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연결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뒷부분에 제시된 신뢰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은 적절한 정리를 위한 화제로 볼 수 있다. 제목은 핵심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대 상황에 따른 경제 형태의 변모'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이동통신회사가 극장 체인, 놀이 공원, 패스트푸드 전문점과 제휴하여 만든 청소년용 멤버십카드가 제휴 기업들의 매출을 높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문에 제시된 '연결의 경제'와 관련성이 높다. '연결의 경제'는 정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경제 형태이므로, 기업들의 제휴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규모의 경제'는 대량생산과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 형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 '범위의 경제'는 기존의 생산라인을 이용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규모의 경제'가 '연결의 경제'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18.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한자성어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맥상 ㉠에는 분업화와 전문화가 과도하게 진행되었다는 정보가, ㉡에는 그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이 두 정보를 연결하면 과도한 분업화, 전문화로 오히려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평가하는 것은 ③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조족지혈(鳥足之血): ㉠ 발의 피라는 뜻으로, 매우 적은 분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소탐대실(小貪大失): ㉡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④ 화중지병(畫中之餅): 그림의 떡. ⑤ 교각살우(矯角殺牛): ㉢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

19. [출제의도] 제시된 어휘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공존지수'는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신뢰를 갖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태도를 수치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신뢰를 기반으로 구성원과 관계를 맺어 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20 - 24 ] (가) 허영자, 「씨앗을 받으며」 / (나) 김광규, 「나의 자식들에게」 / (다) 김남조, 「설일」

(가) 허영자, 「씨앗을 받으며」  
 가을날 초목의 씨앗을 받으며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가을 초목은 긴 세월 '비바람'을 겪으면서도 '황금빛의 생명'인 알찬 결실의 씨앗을 맺었지만 정작 자신은 세상을 바빠 살면서 때만 문혀 돌아왔을 뿐이라고 반성한다. 이와 같은 자기 부끄러움과 반성이 이 시의 주제의식을 이룬다.

**(나) 김광규, 「나의 자식들에게」**

화자는 과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했던 말씀을 떠올린다. 바깥세상(‘태풍/지진’)이 험하므로 항상 조심하라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다보니 자신은 너무도 바깥세상을 모른 채 간혀 그저 길들여진 삶(‘양지바른 텃마루의 고양이’)을 살아왔다고 자책한다. 그래서 화자는 자식들에게 조용히 사는 것, 즉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죄악’이라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하겠노라며 조용히 고백한다.

**(다) 김남조, 「설일」**

화자는 눈 내리는 새해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순수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비록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항상 신(‘하늘’)이 곁에 있어 주었을 뿐 아니라 세상살이(‘삶/사랑’)가 힘들지라도 그것은 신의 은총과 섭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화자는 이제껏 불평불만(‘말로써 풀던’)하던 삶을 삭이고, 세상을 황송한 축하 잔치 자리라고 여기며 좀 더 너그러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20.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세상의 때만 묻혀온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나)는 위험한 바깥 현실은 모른 채 안주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자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단, (다)의 제4연에서 과거 반성적인 대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으나 이 작품은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미래의 다짐에 더 초점이 있다.)

**[오답풀이]** ② (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는 새해 아침에 너그럽고 순수한 삶을 살겠노라며 다짐은 하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는 초점이 되는 대상을 눈으로 본다 해도, 이것을 예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1. [출제의도] 시의 표현기법을 통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가을 초목’은 ‘반백의 어머니’로 비유되어 있다. 이는 알찬 결실의 씨앗을 마련했지만, 화자는 부끄럽기 짝이 없을 만큼 거둔 것이 없다고 자책한다. 따라서 <알찬 결실 거두기 ↔ 결실을 거둔 것이 거의 없음>으로 파악한 ①이 정답이다.

**22. [출제의도] 시와 우화(寓話)를 연관지어, 작품의 세부 정보와 주제 의식을 비교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우화에서 다람쥐 <갑>은 현실의 위험성을 감내하고 또다른 목표를 향해 세상 밖으로 나서는 인간형을, <을>은 바깥세상의 위험성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인간형을 빗대어 놓고 있다. 이를 (나)와 연관지어 보면, <을>은 과거의 ‘나’와 유사한 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나’가 <을>을 평가한다면 <을>은 현실에 안주하며 길들여져 사는 것이라며 비판적 관점에서 볼 것이다. <을>이 하나의 목표에만 집착하는 융통성 없는 존재라고 파악한 ④가 부적절하다.

**23. [출제의도] 두 시어구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보기>처럼 ㉠의 의미를 ‘씨앗’으로, ㉡의 의미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은 ‘씨앗’의 속성인 ‘생명’을 ‘황금빛’이라며 시각화했다. ㉡은 ‘눈’의 속성인 ‘순수’를 ‘얼음꽃’이라며 시각화했다. 따라서 ㉠과 ㉡의 공통점은 구체적 대상이 지닌 속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 있다.

**[오답풀이]** ④ 화자는 구체적 대상을 긍정적 사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화자 자신의 감정을 옮겨 넣어 이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한다.

**24. [출제의도] 시상 전개 과정을 고려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제5연은 이 작품의 제목처럼 눈 내리는 새해 아침(‘설일’)에 순수한

삶을 살겠노라며 경건하게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로 표현된 ‘눈’을 노래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이른바 자연친화적인 삶을 노래한 것은 아니다.

**[ 25 - 28 ] (가) 목성균, 「명태에 관한 추억」 / (나) 정철, 「훈민가」**

**(가) 목성균, 「명태에 관한 추억」**

(가)는 아버지와 명태에 얽힌 추억을 소재로 다룬 수필이다. 전반부에서는 취중에도 명태를 사들고 오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대주의 권위를 느꼈다는 내용이며, 후반부에서는 명태의 덕을 의인화하여 서술한 다음, 조선무와의 궁합에 대하여 맛깔스러운 언어로 서술하고 있다.

**(나) 정철, 「훈민가」**

(나)는 정철의 훈민가로 백성들에게 부모나 연장자를 공경하고, 옳은 일을 하며 살라는 교훈적인 의도로 쓰여진 시조이다.

**25. [출제의도] 두 작품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가)에서 글쓴이가 명태의 비린내를 옷에 묻히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보다는 아버지가 명태를 사오시면서 비린내를 옷에 묻혀 오신 것을 떠올리며 자신도 그렇게 한다면 불경(不敬)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26. [출제의도] 두 작품의 핵심적인 시어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가)의 ‘아버지’는 글쓴이의 체험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구체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의 ‘아버이’는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를 지칭한 말이다.

**27. [출제의도] 부사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한 위치에 사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당당히’는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한 모습이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가)의 글쓴이의 아버지가 명태를 사가지고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주실 때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8. [출제의도] 시어들의 함축적 의미나 지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한다.**

(나)의 II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낸다면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다시 효도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평생’은 부모님께서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고, 자식은 살아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④ ‘두 손’에는 부모에 대한 정성과 공경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29 - 32 ] 이덕환, 「교통카드의 원리는」**

이 글은 활용 범위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RFID가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RFID 시스템을 구성하는 태그, 단말기, 컴퓨터 등의 장치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카드나 상품에 부착되는 태그가 배터리 없이 어떻게 전원을 얻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바코드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술적으로 RFID가 지닌 우수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RFID가 당면한 문제점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도 말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각 문단에 제시된 개괄적 정보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는 배터리 없는 전자칩의 개발에 힘입어 전자칩의 소형화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며, 전자칩이 어떻게 해서 전원 공급 없이도 독자적으로 전류를 형성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소형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전자칩 자체에 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라)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RFID 태그가 정보의 수정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31.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는 ㉔의 기능이 제시되어 있다. ㉔는 ㉓에 들어 있는 태그에 전파의 형태로 무선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태그의 전자칩은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단말기로 보낸다. 단말기는 그 정보를 받아 해독한 후 그것을 ㉔의 컴퓨터로 보낸다. ㉔가 카드의 정보를 분류한 후 그것을 저장해 보관한다는 내용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카드에는 전자칩이 들어 있는 태그가 있다. 그리고 (다)를 보면 태그 주변에 전류를 형성하는 코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⑥는 전파에 해당한다. (다)를 보면 전파에 의해 전류가 유도·형성됨을 알 수 있다. ③ 단말기로부터 무선 신호를 받으면 카드의 전자칩은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단말기로 보낸다. ⑤ ㉔는 단말기로부터 정보를 받아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32. [출제의도] 접두사의 역할을 파악해 단어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초소형’의 ‘초’가 ‘소형’의 의미를 수식·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②의 ‘동식물’이다. ‘동식물’의 ‘동’은 ‘동물’을 뜻하는 말로, ‘식물’을 수식·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대등한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대성공’의 ‘대’는 ‘큰’이란 의미로 ‘성공’의 의미를 수식·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고소득’의 ‘고’도 ‘소득’의 의미를 수식·한정하고 있다. ④ ‘맹훈련’의 ‘맹’은 ‘정도가 심한’의 의미를 ‘훈련’에 더하며 그 의미를 수식·한정하고 있다. ⑤ ‘급경사’의 ‘급’도 ‘정도가 심한’의 의미를 경사에 더하며 그 의미를 수식·한정하고 있다.

[ 33 - 36 ] 이청준, 「견방진 신문팔이」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특이하게 복수인 ‘우리’를 화자로 하여 특이한 행동을 하는 신문팔이를 관찰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신문을 파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신문 이름을 특유의 어조로 외는 신문팔이가 등장하는데 그는 민국일보가 갑자기 폐간되자 외던 가락이 깨져 신문팔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특이한 설정을 통하여 당시의 사건인 민국일보 폐간 사건을 그리면서 언론 탄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⑤의 ‘우리’는 ‘너석’이 정류장에 나타나지 않자 궁금해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철저히 관찰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 생계수단을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 ‘너석’은 민국일보가 폐간되자 가락이 맞지 않아서 신문팔이를 못하고 있다. ③ ‘너석’은 신문 파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특유의 억양으로 외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34. [출제의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A]에서 ‘나’와 ‘우리’의 차이는 당연히 복수와 단수의 차이이다.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는 까닭은 ‘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까닭도 마찬가지로 ‘너석’의 일이 어느 한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35. [출제의도] 작품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마그리트의 ‘자연의 은총’과 관련한 해설을 참고하면 이미지의 중첩이다. 이질적인 대상이 유사점을 바탕으로 겹쳐져 있는 것이다. 이런 중첩이 문학에서는 의미의 중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은 ‘너석’이 민국일보의 복간을 기다린다. 그는 언론탄압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너석’을 기다린다. 그런데 그 ‘너석’에 대한 기다림은 ‘민국일보’를 기다리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기다림의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점을 바탕으로 중첩됨을 확인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서술 시점의 변화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어 있다. ‘나’ 혹은 ‘우리’로 초점 인물인 ‘너석’(신문팔이 소년)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시점이 변화하면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 ①의 경우와 같이 독자와 등장인물 간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진다. 왜냐하면 1인칭 시점과 같이 서술하는 사람이 작품 속에서 직접 하는 것에 비해 아무래도 3인칭이 되면서 작품 바깥에 놓이게 되어 간접적이 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전지적 시점은 관찰자 시점에 비해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가 분명히 드러난다. ③ ‘초점 인물’은 ‘신문팔이 소년’인데 그 점은 바뀌지 않았다. ④ ‘우리’가 ‘그들’로 바뀐 점을 통해 서술 시점이 작품 밖으로 나가 있는 3인칭 시점임을 알 수 있다. ⑤ ‘우리’가 ‘그들’로 바뀌어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37 - 40 ] 박지원, 「광문자전」

박지원의 한문소설 중 한 편이다. 작가는 거지 신분인 ‘광문’을 내세워 비록 신분은 미천하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고 신뢰할 수 있으며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건강한 인간형을 보여 주고 있다.

37. [출제의도]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설정하는 과제를 그 성격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작가는 미천한 신분의 광문의 삶을 통해 신분이나 지위보다는 신의 있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 이상적 인간형으로 내세움으로써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찼던 당대의 양반 사회를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설을 읽어가면서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읽고 나서 심층적 이해를 해야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탐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나머지 질문들은 읽어가면서 곧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발견적 과제’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광문이가 약방 고용살이를 하게 된 계기는 광문의 인품에 감동한 주인 영감의 추천 때문임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광문이가 우두머리이면서 구걸하려 나간 것은 몸이 아픈 아이 때문임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주인 영감이 광문의 뒤를 밟은 이유는 광문이가 거적때기를 무엇 때문에 가져갔는지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한 것임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광문이가 거지이면서 유명 인물이 된 것은 광문이에게 감동한 약방 주인 영감의 선전 때문임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다.

38. [출제의도] 고전소설을 읽고 내용상의 특징 및 서술상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주인공인 ‘광문’과 관련된 몇 개의 사건 혹은 일화(광문이 거지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지내다가 쫓겨난 일, 동네 영감을 만나 의로움을 인정받은 일, 약방 고용살이를 하며 약방 주인을 감동시킨 일, 코믹한 방법으로 싸움을 말린 일, 장가들기를 거부한 일, 살림 차리기를 거부한 일 등)를 발생 순서에 따라 열거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엮어 나가고 있다.

[오답풀이] ③ 이 글에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만 인물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에서 광문이가 웃음을 유발하는 대목은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으로 비극적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39. [출제의도] 인물의 언행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광문이가 자신이 추하다는 이유로 장가들기를 사양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남녀 모두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작가의 근대적 인식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자존심이 강한 인물’을 이끌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이 글에 제시된 사건들로 볼 때, 광문이는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으며(①), 신의가 있는 인물이며(②), 기지를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물이며(③),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물(⑤)임을 알 수 있다.

40. [출제의도] 고전소설을 회곡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의 앞부분에서 약방 부자는 돈을 방에다 두고 외출하면서, 혹시 광문이가 훔쳐 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약방 부자가 광문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약방 부자의 이러한 의심은 처조카가 와서 광문의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됨을 ㉔의 뒷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출에서 돌아온 약방 부자는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광문을 계속 의심하는 상황이므로, ㉓은 적절하지 않다.

[ 41 - 43 ] 정병호, 「한국 무용의 미학」

손이 중심이 되어 선을 만들어 내는 우리 춤은 춤의 진행과정 내내 곡선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 곡선 사이에는 우리 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정지'가 존재한다. 정지는 '움직임의 없음'인데, 이는 동작의 연상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지'를 동작의 연장으로 보는 것은 '마음의 몰입'으로 인해 가능한데, 몰입현상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상상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 춤이 내내 곡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실제하는 곡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몰입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우리 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읽고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우리 춤은 '곡선'을 위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정지'가 나타나곤 하는데, 정지의 상태에서도 상상의 선을 느낄 수 있는 경지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 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춤의 힘찬 선 및 부드러운 선 등 다양한 곡선은 호흡조절을 통해 구현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힘차고 가벼운 동작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단락에 '우리 춤은 손으로 추는 선의 예술이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에 '~우리 춤의 선은 내내 곡선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④ 네 번째 단락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정지'는 우리 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소개되어 있고, 우리 춤은 '곡선'과 '정지'를 통해 구현되므로 감상할 때는 정지 동작을 잘 살펴야 함을 알 수 있다.

42. [출제의도] 제시된 핵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우리 춤은 '곡선'을 내내 유지하면서 진행된다. 이 말은 춤이 시종일관 곡선만으로 진행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지'의 순간에도 상상의 선을 만들어 춤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몰입현상에 의해 완성되는 우리 춤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곡선'과 더불어 '정지'의 순간에도 유지되는 선까지 느낄 수 있어야 우리 춤을 제대로 감상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①은 실제로 보이는 곡선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정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②~⑤와는 의미가 다르다.

4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른 장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우리 춤에 나타나는 핵심 화제인 '역동적인 움직임'과 '여백'을 조지훈의 시 '승무'의 내용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승무의 각 연들 중에서 역동적인 움직임과 여백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장면을 찾는다. ㄱ에는 소매가 허공을 휘젓고 몸이 날아갈 듯 돌아서며 발을 움직이는 모습 등 역동적인 모습이 잘 구현되어 있고, ㄴ에는 춤을 멈춘 동작으로 가만히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므로 '정지'의 동작을 의미하는 '여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ㄹ은 역동적인 동작이 잘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춤이 다시 멈추는 장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 44 - 47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 글에서는 문화 현상에 접근하는 두 관점을 소개하고 그것들이 문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를 덧붙이고 있다. 관념론적 관점은 문화를 정신의 산물로 바라본다. 따라서 문화 현상 속에 담겨 있는 의미나 가치, 정신세계를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유물론적 관점은 문화를 환경의 산물로 바라본다. 따라서 문화 현상의 연원을 인간의 생활 방식에서 찾고자 한다. 두 관점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정신적 측면에서의 의의와 물질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다.

44. [출제의도] 글의 논리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문화 현상에 대한 관념론적 관점의 접근에 대한 내용이고 (다)와 (라)는 문화 현상에 대한 유물론적 관점의 접근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가) ~ (나)'와 '(다) ~ (라)'는 병렬적인 관계이다. (마)는 두 관점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앞의 내용 전체에 이어지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45.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관념론적 관점은 문화 현상을 정신의 산물로 본다. 따라서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정신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역에 포함된 성분을 살피는 것은 실제적인 생활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므로 유물론적 관점을 적용시킨 결과가 된다.

[오답풀이] ① 숫자가 가지는 신성함은 인간의 정신과 관련되므로 관념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⑤ 이 반응은 산모나 아기가 병에 걸리는 이유를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의 경험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이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46. [출제의도] 글 속에 담겨 있는 추론 과정을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㉔의 추론 과정은 논리적인 단계를 거친다. 이 문제에서는 'B는 C이다. A는 B이다. 따라서 A는 C이다.'와 같은 3단 논법을 따라 진행되는 논리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A는 C이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답이다. A는 '인간과 돼지'에 해당하고 C는 '섭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⑤ 인간과 돼지는 섭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점이 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47. [출제의도] 문장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기 때문이다.'는 앞 문장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암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결과의 원인은 암소가 수소를 낳는다는 점이다.

[오답풀이] ③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문장이다. ⑤ 앞의 내용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의의를 서술하고 있는 문장이다.

[ 48 - 50 ] 박시룡, 「물고기의 무리 짓기」

물고기가 무리 짓는 원리와 이동에 관해 소개한 글이다. 물고기는 주로 시각과 옆줄 감각을 이용하여 무리를 짓고, 대열을 유지한다. 또 무리 속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등의 이득을 얻는다.

4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물고기가 무리를 지어 다니면 앞의 동료가 만든 소용돌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들여 나아갈 수 있고,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피하는데 유리하다. 이 내용으로 보아 물고기의 무리 짓기가 생존에 유리한 면이 있다는 사실은 파악이 가능하나, 생존에 유리한 생태 환경에 대한 언급은 없다.

49.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 시각 자료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원리와 물고기가 그 소용돌이를 이용하여 나아가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뒤쪽으로 생긴 소용돌이는 순차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을 이루는데, 물고기는 이 소용돌이 사이를 좌우로 헤엄치면서 이동한다. 따라서 물고기가 나아가는 방향은 ⑤처럼 '다 → ㄴ → C'이거나 다른 하나는 '가 → ㄴ → A'이다.

50.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세부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물고기의 옆줄은 다른 생물이나 물체, 물의 흐름, 진동, 온도, 깊이 등을 감지하는 감각 기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물고기가 무리를 지어 다니면 작은 물고기 떼를 큰 물고기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옆줄이 포식자를 위협하여 쫓아내는 것과는 상관없다. ④ 명암을 구분하는 것은 물고기의 시각이다.